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음 11월 6일) 제24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하드웨어 진전 보이는 새만금을 채울 소프트웨어

## 규제특구 지정 · 웰니스 연계

전북도, 2019 새만금 정책포럼

무인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화 방안 제시  
“관광 콘텐츠에 웰니스 가미하면 큰 시너지 효과” 강조

새만금 국제공항 행정절차 마무리와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있는 개발 약속 등 하드웨어에 큰 진전을 보이는 새만금을 채울 소프트웨어로 종합적 규제특구 지정, 웰니스산업 연계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2019 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새만금 미래산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의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화’와 ‘웰니스 산업과 연계한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등 2건의 논의 과제를 위한 포럼위원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변호사인 구태언 위원은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 방안을 제시했다.  
구 위원은 “새만금을 종합적 규제특구로 지정해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무인 자율주행, 드론, 원격

진료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자”며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검증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새만금은 규제혁신의 테스트베드, 정부산업의 전략적 요충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다른 위원들도 구 위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새만금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교수인 김미자 위원은 새만금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웰니스산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웰니스산업은 생활 수준 상승과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관광 산업이며, 시장 규모가 4.2조 달러(한화 약 5,040조)로 세계 경제 생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새만금관광 콘텐츠에 웰니스산업을 가미하면 상상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새만금

에 건강과 힐링(치유)을 위한 웰니스타운 및 웰니스 타워 조성, 전시컨벤션 센터, 테마파크 등 웰니스 관광허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위원들은 새만금에 웰니스산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면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4개분과(정책기획, 산업·투자, 관광개발, 수질·환경)에서 논의한 성과 보고와 새만금 현안 공유 등이 진행됐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투자유치에 활기가 돌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새만금 콘텐츠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행정·투자유치·관광개발·수질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된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만금에 적용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전북도와 외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2012년부터 운영됐으며 새만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제안을 해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진성 기자

## 국민연금, 현 수익률 8.92% · 수익금 57조원

9월 말 현재 기준 기금 적립금 714조300억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 운용본부는 2019년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전년도말 대비 75조 5000억원 상당 늘어난 714조3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연초 이후 운용수익률은 8.92%, 운용수익금은 57조4000억원(잠정)에 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9월 말 현재 금융부문 투자자산의 평가액은 기금 적립금의 99.8%인 713조 원이며,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5.61%, 운용수익금은 351조 5천억 원(잠정)에 이른다. 국민연금기금 금융부문의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5.08%, 해외주식이

24.10%, 국내채권이 4.27%, 해외채권이 16.47%, 대체투자 자산이 6.87%의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잠정 수익률이 약 9%에 이르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와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안화 및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국내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유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주식 자산은 기금 포트폴리오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주식은 대외 환경의 개선과 기업실적 반등의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상승하였고, 해

외주식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정책과 경기 회복 전망으로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금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는 채권 자산 역시 미국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 유지에 영향을 받아 강세를 나타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기금 성과에 기여했다.  
한편, 연중 대체투자 자산의 잠정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및 배당 수익과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환산이익에 따른 것으로,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 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연도말 기준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자원봉사의 힘, 전북도민 행복’ 지난달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9 전북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등 비롯한 도내 자원봉사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의 힘 도민행복’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도민 참여가 새만금잼버리 성공 초석”

제2기 잼버리 서포터즈 위촉 송하진 지사, 적극 참여 당부 서포터들 “내년에 더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 확대되길”

전북도와 사)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법도민지원위원회(이하 법도민지원위)는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들의 2019년 한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확대·편성을 통한 세계잼버리 참여열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잼버리 서포터즈 200여명과 송하진 도지사, 법도민지원위 김동수이사장, 권혁 스카우트전북 연맹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서포터즈들은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2019년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활동 성과보고와 서포터즈 교육, 향후 활동 안내 등 본격적인 서포터즈 활동에 앞서 세계잼버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향한 전라북도도와 유관 기관·단체 그리고 도민의 마음은 담은 ‘잼버리 희망퍼즐’ 만들기 참여 등 적극적인 잼버리 서포터즈 활동의 지를 다졌다. /김진성 기자

도내 14개 시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으로 구성된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2019년 한해 도내의 주요행사장 현장홍보, 세계잼버리 행사 참여, SNS활동 홍보 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불조성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는 작년 381명에서 702명으로 도민들의 참여폭이 더욱 증가하여 향후 더욱 폭 넓은 서포터즈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송하진 도지사는 “잼버리서포터즈들과 같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의 초석이고 시발점이다”며, 잼버리 서포터즈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송영철 서포터즈(진안군)는 “170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서포터즈로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서포터즈가 더욱 확대된 만큼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더 다양한 분야로 서포터즈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와 법도민지원위는 여러 서포터즈들의 경험과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방법, 다양한 분야의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서포터즈들이 더 즐겁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체육회장 선거인 수 340명

내년 1월 10일 치러지는 민선 전북도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수가 340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40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대의원 수는 기본배정(68명)과 추가 배정(234명), 가중치 배정(38명)이 합쳐진 것이다.  
기본배정은 도 체육회 정식 대의원이며 추가 배정은 61개 정회원 종목단체(각 2명)와 도내 14개 시군체육회(각 8명)이다.  
가중치 배정은 선수등록 수와 인구 수 기준 상위 50%에 해당되는 종목단체(31개)와 시군체육회(7개)에 각 1명씩 더 배정된 것이다.  
이번 선거인 수는 전북은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의 경우 300명 이상이 선거인 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한체육회 표준안에 따라 적용됐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d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